



승부조작의 검은 유혹은 범죄의 특성상 승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정 종목, 특정 포지션을 타깃으로 하기도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포츠동아DB

특정 포지션 노리는 ‘검은 유혹’



16 지능화되는 승부조작

축구 골키퍼·야구 투수 등 승부조작 타깃 출전선수 적은 농구도 ‘검은 유혹’의 대상 주로 선수·감독 지인 통해 1차적으로 접근

우리나라의 연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31조1171억원(2013년 기준)으로 2010년 13조2202억원에서 3년간 135.4%나 증가했다.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련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각 종목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들을 향한 ‘승부조작의 검은 유혹’도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점점 지능화되는 검은 유혹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승부조작이 한국 스포츠계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은 2011년 5월이었다. 프로축구 현역선수 2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최초로 입증된 뒤 수사가 거듭되면서 연루자들은 늘어갔다. 승부조작의 광풍 속에 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등록·공시된 K리그 648명 중 10%에 가까운 50여명의 전·현직 선수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프로 야구도, 프로농구도, 프로배구도 승부조작의 망령에 시달렸다.

승부조작은 조직폭력배, 브로커, 전수,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이 선수 또는 감독에게 접근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차적으로 선수 또는 감독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을 통해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직접 이들에게 접근한 뒤 금전적 거래 및 승부조작 내용을 협의하고 실행에 옮긴다.

한편의 ‘각본 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선 ‘검은 유혹’과 함께 ‘검은 손’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과거 수차례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 전문조직은 승부조작 가담자에게 직·간접 협박 및 폭력이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요즘은 특히 승부조작이 점점 더 국제조직화·지능화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듯, 승부조작을 노리는 전수와의

브로커도 점점 더 은밀하고 체계적 방법으로 범죄를 기획·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목별 특성에 따른 검은 유혹

최근 남자프로농구계는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의혹으로 다시 한번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축구, 야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명의 선수로 승부를 가리는 농구는 선수 1명이 승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타 종목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의 주요 타깃이 된다. 또 종목의 특성상 감독 의존도가 높아 승부조작의 검은 유혹이 감독에게 다갈될 개연성도 크다. 야구, 축구는 특정 포지션의 선수가 ‘우선 포섭 대상’이 된다. 2012년 야구에서 확인된 2명의 승부조작 가담자는 모두 투수였다. 첫 이닝 고의4구 등 투수는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의 ‘배팅 항목’을 조작하기가 타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같은 측면에서 축구는 실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골키퍼가 필드플레이어보다 더 위협에 가까이 노출돼 있다.

●엄정한 사후 징계와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승부조작의 특성상, 각 협회나 연맹 등이 자체 시스템으로 승부조작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각 단체가 꾸준히 소양교육 등을 통해 승부조작의 폐해를 주지시키면서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부조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종목, 나아가 스포츠 전체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다. 문제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엄벌에 처해 승부조작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검은 유혹을 받은 개인은 적극적 신고를 통해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스케줄 자유로운 개인종목 선수들 ‘위험 더 노출’

7월 남자농구사건 발단은 유도·레슬링선수

불법 스포츠 도박은 국내스포츠에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4대 프로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이 나오면서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올해는 남자프로농구가 5월부터 시즌이 개막된 지금까지도 불법 스포츠 도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중성이 높은 프로스포츠에 가려있을 뿐, 개인종목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례도 적잖다. 7월 불거져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남자프로농구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이 좋은 예다. 대중의 초점은 남자프로농구 스타플레이어인 김선형(SK), 오세근(KGC) 등에게로 쏠려있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전·현직 유도선수들 및 레슬링선수들이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가담은 물론이고 국군체육부대(상무) 시절 친분을 쌓은 농구선수 박성훈(은퇴)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한 정황이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개인종목 선수들은 단체종목 선수들에 비해 생활이 자유롭기 때문에 운동 외 타인과의 접촉도 잦다. 검은 유혹의 손길에 뻗치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만큼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그림자도 쉽게 드리우기 마련이다. 게다가 경기 성과에 따른 수익 및 수당도 단체종목에 비해 높으니 배팅을 할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한 단체종목 선수 A는 “종목의 특성상 단체종목에 비해 개인종목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이 자유로웠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 내에 마련된 컴퓨터실에 가면, 이미 개인종목 선수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배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친분을 쌓은 단체종목 선수들에게 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뻗칠 수 있다. 연예인들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수였던 KIA 최희섭이 은퇴한다.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김기태 감독에게 은퇴 의사를 전했다. KIA는 코치직을 비롯해 팀 간판선수에 걸맞은 예우를 해줄 방침이다. 스포츠동아DB

한국인 최초 ML 야수 최희섭, 그라운드 떠난다

김기태 감독과 면담 통해 은퇴 의사 “더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야수 최희섭(36·KIA)이 은퇴한다. 최희섭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김기태 감독과 면담하며 은퇴 의사를 전했다. 김 감독은 함께 고심하며 좀더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1차적으로는 선수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최희섭은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올 시즌 후회 없이 뛰고 싶었다. 겨우내 열심히 훈련했는데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김기태 감독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은퇴를 결심한 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심했는데, 감독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셨다”며 “미국에서 야구를 했던 시간, KIA에 입단해 우승했던 순간 등이 많이 떠오른다. 올해 한국프로야구 통산 100호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감독님 생각도 많이 했다. 최근 몇 해 부상이 잦아 팬들께 죄송했고, 더 이상 선수로 팀과 감독님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희섭은 1999년 고려대를 중퇴하고 당시로

는 파격적인 12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다. 2002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플로리다와 LA 다저스를 거쳐 2005년까지 뛰었다. 빅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타율 0.240, 40홈런, 120타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주목받는 대형 유망주였지만 2003년 뇌진탕 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2007년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으로 고향팀 KIA에 입단했고, 2009년 타율 0.303에 33홈런 100타점으로 페넌트레이스 1위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2010년에도 21홈런을 쳤지만 크고 작은 부상과 수술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KBO리그 통산 634경기에서 타율 0.281, 100홈런, 1021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최희섭은 “은퇴하지만 팀에 항상 큰 보탬을 하고 싶다. 미국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이 이제 감독도 되고 코치, 팀 프런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IA 구단은 최희섭과 코치 또는 해외 스카우트 등 은퇴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 중이다. 은퇴식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롯데, 2군 타격코치에 삼성 출신 프랑코 영입

ML 타격왕 출신…2009년부터 지도자 생활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타격왕 출신으로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활약했던 선수가 KBO리그에 코치로 돌아온다.

롯데는 20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훌리오 프랑코(57·사진)를 퓨처스(2군) 타격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1991년 텍사스 소속으로 아메리칸리그 타격 1위(0.341)에 올랐던 프랑코는 2000년 삼성의 외국인타자로 뛰면서 132경기에서 타율 0.327(477타수 156안타)에 22홈런 110타점을 기록한 바 있다.

1982년 필라델피아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프랑코는 클리블랜드, 텍사스,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거쳐 1995년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에서 처음 용병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98년 다시 지바롯데 유니폼을 입었고, 2000년에는 삼성 소속으로 한국무대에 데뷔했다. 단 한 시즌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최고의 빅리그 경력을 지녔던 그는



삼성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재’와도 같았다.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모습 대신 언제나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삼성 선수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롯데는 이런 ‘성실함’을 높이 샀다. 프랑코는 한국에서 뛴 때 이미 만 42세였지만, 2001년 빅리그로 돌아가 애틀랜타와 뉴욕 메츠 소속으로 2007년까지 현역 생활을 연장했다. 2009년 루키리그 GCL 메츠 감독을 시작으로 멕시칸리그 페리코스 데 푸에블라 감독(2012~2013년), 미국 독립리그 포트워스 캐츠 플레이코치(2014년)로 지도자 생활을 했다. 올해는 일본 독립리그 탐인 이시카와 밀리언스타스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어 화제를 모았다. 롯데 관계자는 “오랜 시간 코치 후보로 리스트에 있었다. 타격기술은 물론 자기관리 측면에서 성과를 뒀다”며 깜짝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손아섭·황재균, 동시 포스팅은 불가능

1명 입단 계약 실패 땀 다음 선수에 기회

포스팅시스템을 통한 메이저리그 진출, 1년에 1명뿐이라는 규약으로 벌어진 롯데의 ‘내부경쟁’. 이에 대한 KBO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명의 동시 포스팅은 불가능하지만, 입단계약에 실패할 경우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생긴다.

롯데는 시즌 종료 후 외야수 손아섭(27·사진 오른쪽)과 내야수 황재균(28·사진 왼쪽)이 나란히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고민에 빠졌다. 주축 타자들이 빠지게 된 데다, KBO 규약상 FA(프리에이전트)가 아닌 선수의 해외 진출은 1년에 1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손아섭은 7년차, 황재균은 8년차로 2명 모두 완전한 FA(9년차)는 아니다.

KBO는 규약 104조 2항에서 ‘외국 프로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 선수는 1년에 1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고, 자국리그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전례가 없어 KBO는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KBO는 일단 둘 중 한 명만 포스팅을 신청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해당 선수의 입단계약이 최종 발발될 경우, 또 다른 선수의 포스팅 신청은 가능하도록 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규약에 가로 막혀 선수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제 공은 롯데로 넘어갔다. 과연 어느 선수에게 포스팅 우선권을 줄지 결정해야 한다.

이명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불법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Stop&Clean)!

Stop & Clean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부정경기 추방!

정정당당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

불법스포츠도박 및 부정경기 ‘짝!’ 추방합시다

진정한 스포츠·레저문화의 ‘짝!’을 띄웁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 (www.cleansports.or.kr)

한국야구위원회 공정센터 02-3460-4699 (www.koreabaseball.com)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singo@kfa.or.kr(www.kfa.or.kr)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센터 02-2002-0691 (www.kleague.com)

한국농구연맹 클린바스켓센터 02-543-2288 (www.kbl.or.kr)

한국여자농구연맹 핫라인 080-077-0909 (www.wkbl.or.kr)

한국배구연맹 클린센터 02-6393-5408 (www.kovo.co.kr)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CHANNEL dongA.com

후원 :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KBL 한국농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 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경찰청